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억대 투수 됐어요"

KIA 양현종 185% 오른 1억원에 연봉 재계약

KIA 타이거즈 양현종(21)이 억대 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프로 3년차인 양현종은 18일 KIA와 내년 연봉 1억원에 재계약했다.

올시즌 연봉 3천500만원이었던 양현종은 무려 185.7%인 6천500만원이나 올랐다.

지난 2007년 프로에 입문했던 그는 불과 3시즌을 거치고 나서 억대 연봉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양현종은 이번 시즌 29경기에 출장해 12승5패에 평균자책점 3.15를 올리며 맹활약했으며 지난달 일본 요미우리와 한일 클럽 챔피언십에서는 선발 투수로 나와 잘 던졌다.

덕분에 윤석민 등을 제치고 토종 투수 가운데 팀 내 고과 평가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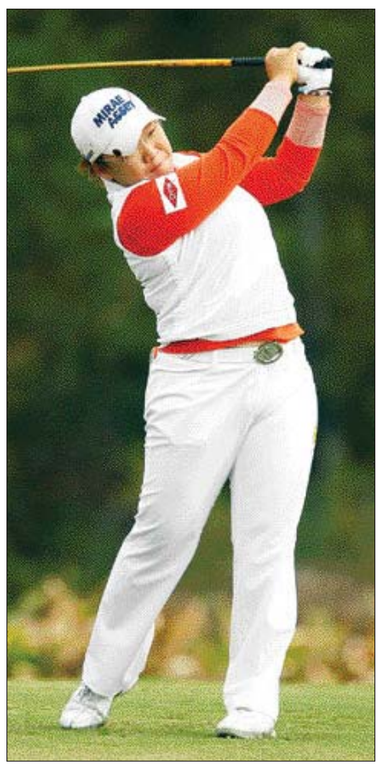
현재 모교인 광주 동성고에서 훈련중인 양현종은 "계약 조건에 만족한다"며 "내년 시즌에도 두자릿수 승수를 올리면서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로써 KIA는 2010년 연봉 재계약 대상자 56명 가운데 44명과 재계약을 마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존' 신지애 최우수여자선수상

미국골프기자협회 선정 최우수남자선수엔 우즈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사진)가 미국골프기자협회(GWAA)가 선정한 올해의 최우수여자선수상을 받았다.

매년 최우수남자선수, 최우수여자선수, 최우수시니어선수를 발표해온 GWAA는 올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신인왕과 상금왕을 차지한 신지애를 여자부문 최고의 선수로 선정, 18일 발표했다.

남자부문에는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시니어부문에는 로렌 로버츠(미국)가 각각 뽑혔다. 신지애는 GWAA 투표에서 105표를 받아 강력한 경쟁자였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85표)를 제쳤다.

신지애는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을 오초아에게 넘겨줬지만 신인으로서 3승을 올리고 최저타수 부문에서도 2위에 오르는 활약을 펼친 것이 이번 수상에 큰 힘이 됐다. 신지애는 내년 4월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우즈, 로버츠와 함께 이 상을 받게 된다.

한편 남자부문에서는 우즈가 84%(168표)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통산 10번째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는데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20표, 아시아 남자 최초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도 13표를 받았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김준태(시인)씨 장남 형남군 박명수씨 장녀 민희양=19일(토) 오후 1시10분 광주상록웨딩홀 4층(장미홀)

▲김희규(전 영암문화원장)·한정희(영암 민속예술단장)씨 삼남 경표(영암군 지역경제과)군 김공도(영광군 대마면 공도화원)·백인숙씨 차녀 경연(영암군 환경보전과)양=19일(토) 낮 12시30분 영암읍 청풍원웨딩홀.

▲박요주(세무사·전 광주지방 국세청 조사국장)·이양자씨 장남 용필(광주 mbc 기자)군 채수운·민봉기씨 장녀 윤진양=19일(토) 오후 1시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오영수·박숙영씨 장남 동원(함평 다이너스티)군 임한남·이부덕씨 차녀 은영양=19일(토) 낮 12시30분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2층(로즈마리홀)

▲김우식(서울 용산 건축토목학원 원장)·이정화씨 장남 희성군 오광진(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기획실장)·손미숙씨 장녀 성희양=19일(토) 오후 6시 서울 팔레스호텔 지하 1층(그랜드볼룸)

▲정상영·고점숙씨 장남 기재군 김용흘(광주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박수자씨 차녀 진경양=20일(일) 오전 11시 50분 광주상록웨딩홀 4층(장미홀)

▲국영환(영암 도초초등학교)·김미숙(곡성 중앙초등학교)씨 차남 창훈(곡성군 기획예산실)군 선종남(경신건설)·조복희씨 장녀 율미(국민은행 문흥동지점)양=20일(일) 오전1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부음

▲김 상씨 별세 현성(전남중)·현돈(조선대학교)씨 부친상=발인 20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응배씨 별세 창재·두재·창숙(조선대학교)·선향·경희(한국언론재단)씨 부친상=발인 19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신영복씨 별세 일근·현주·은주·순주씨 부친상=발인 19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현성순씨 별세 임경재·성국·경애·수현씨 모친상=발인 19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이택근 25억 받고 LG 간다

KBO, 트레이드 승인 유보 방침

프로야구 히어로즈가 본격적인 '선수 팔기'에 나섰다.

히어로즈는 18일 LG에 이택근(29)을 내주고 선수 박영복(26)과 강병우(23)에 현금 25억원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장석 히어로즈 사장이 "포지션이 중첩된 선수는 적극적으로 팔겠다"고 선언한 뒤 나흘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트레이드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멤버인 이택근은 올해 타율 0.311을 때리고 홈런 15방에 타점 66개를 거둔 히어로즈의 간판 외야수다.

도루도 43개나 기록해 히어로즈 공격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선수지만 재정난에 휩싸인 히어로즈는 이택근을 거액에 LG로 넘겼다.

반면, 양 구단의 트레이드 승인 요청에 대해 KBO는 "히어로즈가 아직 가입금 36억원을 완납하지 않아 다른 구단처럼 똑같이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승인 유보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김남일 러 프로축구 톰 톰스크서 뛴다

연봉 100만달러에 1년 계약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김남일(32)이 내년부터 러시아 프로축구 톰 톰스크에서 뛴다.

톰 톰스크는 18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비형 미드필더 김남일의 영입을 알렸다. 계약 기간은 내년부터 1년이며, 선수와 구단 간 합의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단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밝히지 않았지만, 세금을 제외한 순수 연봉이 100만달러(약 11억8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톰 톰스크는 홈페이지에 김남일이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도 맡았고, 2002 한일 월드컵에도 출전했다는 내용과 함께 A매치 경력(89경기 2득점) 등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톰 톰스크는 1994년부터 5시즌 동안 K-리그 부천 유공(현 제주 유나이티드)의 사령탑을 맡았던 발레리 니폼니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봉중근·안시현 성균관대 입학

성균관대(총장 서정돈)는 이 대학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한 프로야구 LG 투수 봉중근과 프로골퍼 안시현, '새터민 복서' 최현미 등이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리나라의 준우승을 이끈 '봉의사' 봉중근과 2003년 LPGA CJ나인브릿지클래식 우승자 안시현, 세계복싱협회(WBA) 여자 페더급 챔피언 최현미는 모두 스포츠과학부에 합격해 최근 등록을 마쳤다고 대학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스포츠 중계

19일(토)

▲09/10 NBA〈뉴올리언스 : 덴버〉(10 : 00·MBC ESPN)

▲09/10 V리그〈현대캐피탈 : 신협상무〉(14 : 40·KBS n스포츠)

▲09/10 프로농구〈LG : 전자랜드〉(14 : 50·SBS스포츠) 〈KT&G : KCC〉(14 : 50·MBC ESPN) 〈KT : SK〉(17 : 00·MBC ESPN)

▲축구 올림픽대표 평가전〈대한민국 : 일본〉(15 : 00·SBS)

▲09/10 프리미어리그〈포츠머스 : 리버풀〉(21 : 30·SBS스포츠)